



물러난 한파...징검다리에 속삭이는 햇살 최근 지속됐던 한파가 잠시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평년 기온을 회복한 16일 오후 시민들이 광주 서구 유덕동 광주천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젯더미 된 관광명물 여수 수산시장 정부 적극 지원... 항구적 복구 시급

피해액 100억 넘을 듯...전남도 1억·안전처 10억 긴급지원  
대선후보들 방문도 잇따라

지난 15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의 상실감이 큰 데다 최근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여수의 명물인 수산시장이 본모습을 되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특히 여수소방서가 피해액을 5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한 가운데 상인들과 여수시 등은 공동 및 개인 피해만 50억원, 영업피해까지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남도, 여수시,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제해구조협회 등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관련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15일부터 화재복구 긴급현장대응반을 운영중인 중기청은 시설복구 시까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및 공설주차장에 임시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기청 자체 조사결과 점포 건물은 상가회에서 20억원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로 보상범위를 놓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아케이드 등 공용시설은 지자체가 선 복구하고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상인에 대해서는 7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교육청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고교 수업료 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하고 대학생은 장학금 지원을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전국제해구조협회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20억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62억1200만원을 모금해 피해 상인에게 위로금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우선 도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16일 지원하고, 설 명절 전 도 재해구조기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여수 수산시장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재난 특별교부

세 10억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행정자치부·국세청·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정부는 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13명은 1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주철현 여수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장을 하루속히 복구하고는 데에 시급한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수가 처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특검, 430억 뇌물·위증 혐의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관련기사 3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상선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매출 300조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



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차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 “정호성과 이메일 공유...연설문 사전에 받아봤다”

최순실, 탄핵심판 증인 출석

국정 개입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3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박 대통령의 말씀 자료나 연설문 등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과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보면...된다”고 이메일 계정 공유를 인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입장에 대해 의견을 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정호성-최순실 간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최씨의 이날 진술과 정반대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혀자 陸空 발포...광주시민 상상작전 ▶6면  
新湖南誌-광주 칠석고싸움 ▶18면

### 진월동! 클래스가 다르다

진월동의 가치에 걸맞은 명품 브랜드 아파트

#### 진월동 코오롱하늘채

- 힐링되는 자연환경
- 교육의 핵심입지
- 교통의 특급허브

계약자 사은품 증정

조함원 모집 마감임박

### 성황리 개관중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중도금 무이자
- 청약통장이 없어도 OK
- 지하철 2호선 역세권
- 8학군 명문학교 밀집

문의전화 062-373-0111

총 301세대 (70㎡, 84㎡)

주택용보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695길 19

시흥IC